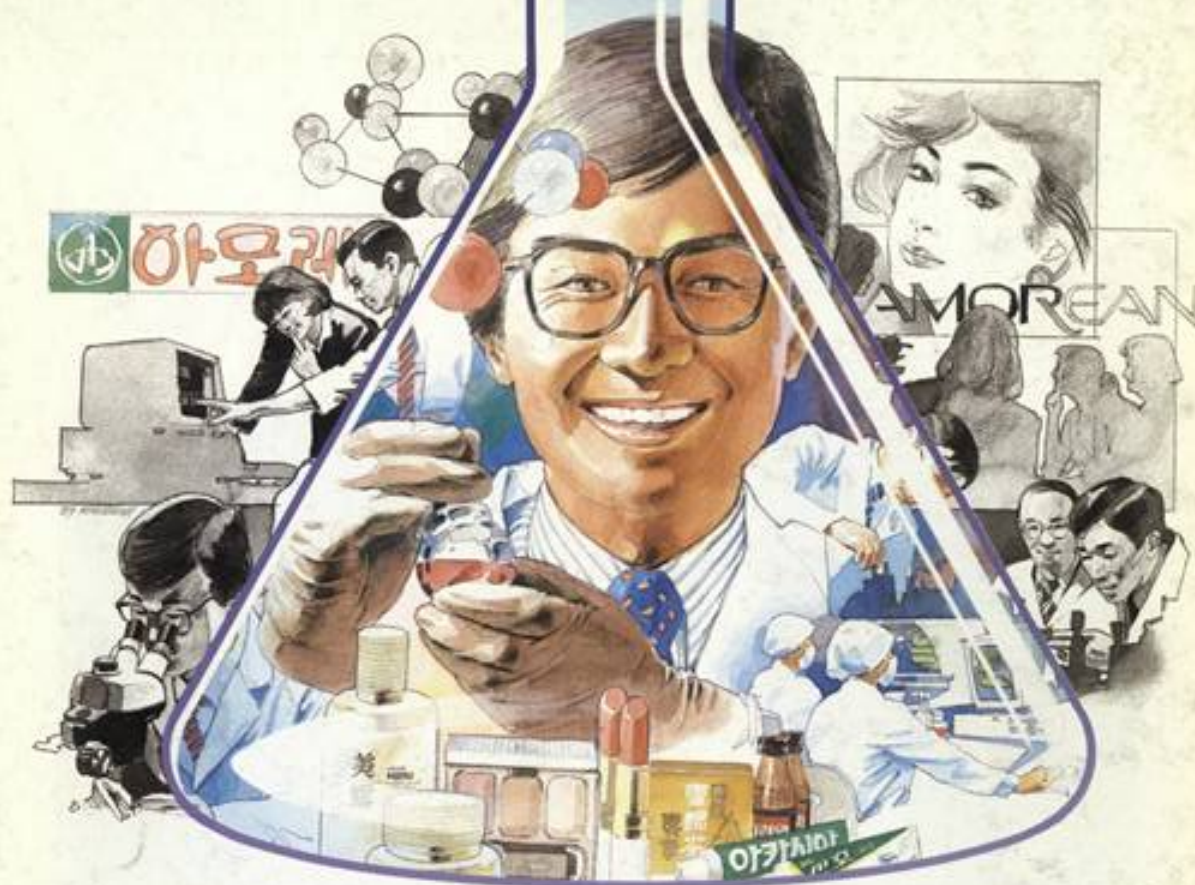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 244명의 연구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평양화학

인류의 아름다움, 사회의 아름다움을 위한 태평양화학의 노력은 90년대에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첨단의 신소재와 생명공학을 응용한 심도있는 피부과학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저자극성 화장품 뿐 아니라 각자 피부 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분의 화장품,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가정생활용품,

식품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품을 연구·개발해왔던 태평양화학 244명의 연구원들—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중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평양화학이 새롭게 펼쳐갈 90년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앞당겨 실현시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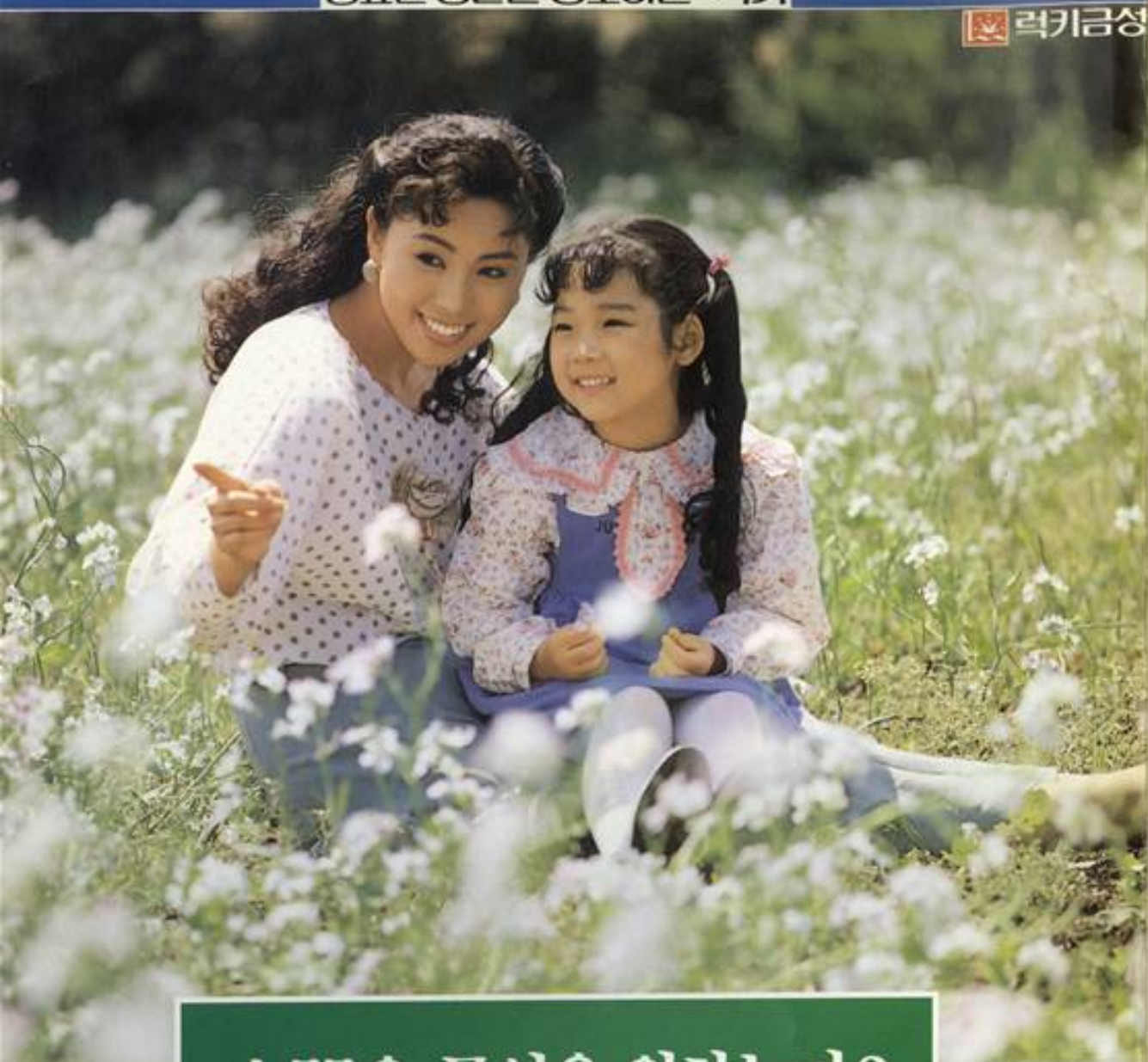
여성성

월간여성 3월호(통권283호) / 1991년 3월 10일
(매월 10일) 발행 / 1964년 6월 13일 등록(서)라-7
1965년 2월 25일 제3종 우편물(나)인가
(우편번호 140-013)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특집
1991년도 사업계획





人間은 무엇을 원하는가?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초우량 종합화학회사-럭키

풍요의 기쁨과 아름다운 꿈으로 충만한 생활—
언제나 밝고 건강한 웃음으로 가득한 생활—
바로 럭키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경영목표입니다.
초우량 종합화학회사-럭키는 소비자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풍요한 21세기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럭키
LUCKY LTD.

월간 여성

1991년 3월호
통권 283호

목 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女聲 / 김효자
화해의 출발

특집 / 1991년도 사업계획

6 1991년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

8 1991년도 회원단체 사업계획

18 매스컴에 비친 여성 / 매스컴 모니터회
성인없이 제작되는 연말연시
특집프로그램

20 이달의 여성계 동향 / 상진선

23 여성전문직 / 전장숙
요리연구가

26 소비(자)리포트 / 안기희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전략

31 기업탐방
한국통신

34 지방여성단체소식
대전직할시

37 협의회소식
취임사·신임원 약력

42 수필 / 조동민
보람된 여협살이를 되돌아보며

40 협의회 소식

44 우리들의 공장



화해의 출발

재래의 고부간의 갈등에는 그래도 고상한 일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질없는 주도권 싸움이나 어리석은 투기싸움같이 보였을 지 모르지만 멀게 보았을 때 그것은 이제껏 자기가 해오던 방식을 지키려는 완강한 방어 의식과 어떻게든 새 바람을 불러 넣으려고 하는 새 사람의 만만찮은 도전의식간의 충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친구 세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으레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런 대립과 갈등 속에서는 전통의 계승과 새 문화의 창조라고 하는 발전의 원리가 적용된다. 옛 것을 전승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의 자랑스런 가정문화는 그런 속에서 창조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결혼에 따르는 여성들의 갈등은 재래의 그것과는 전혀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신부가 시집 문턱을 넘어서기 전부터 안고 들어가는 이 신한국판 혼수 갈등, 이것은 고부간의 사사로운 대립양상을 떠나서 부부간에 그리고 사돈간에까지 확산되더니 마침내는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딸을 고이 길러 떠나 보내는데 어찌 빈손으로야 보낼 수 있었을까. 옛날엔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찌면 딸을 시집보낼 준비는 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모른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딸 넷을 기르던 우리 어머니는 비단조각이나 모



김효자

(경기대 일본학과교수·본회 출판문화위원)

시·베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았다가 등잔불 밑에서 조각보를 만드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딸들이 시집가는 것도 못보고 너무 빨리 돌아가셨지만 그 조각보 중의 하나가 막내딸인 나에게도 돌아왔다. 가늘게 시집을 넣어 한 뽕한뽕 손으로 감쳐서 만든 모시 조각보는 지금은 아무런 실용성도 없는 것이 되었지만 나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처럼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이 예물이든 선물이든 보내는 행위에 정성과 사랑과 기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뇌물의 성격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서 한 수 더해서 옴으로 양으로 받는 사람의 강요가 작용했다면 이름이 허울좋은 예물이지만 그것은 약탈의 성격을 띄게 되는 것이다.

시집가는 새색시가 마음씨 착하고 현명한 젊은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생활에 시달리는 부모님께 빛을 얻어주고 떠나며 어찌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며 새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대해서 원망과 경멸의 마음이 가슴속에 꿈

틀거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최근의 어떤 조사 보고에 의하면 결혼하는 여성의 반에 가까운 수가 이런 갈등을 체험하고 있다고 전한다. 억지로 얼어붙은 밍크 코트가 얼마나 귀한 것을 잃고 그 댓가로 손에 넣은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서울의 하늘 아래 지금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허욕과 사치의 회오리바람은 이 사회에 뇌물수수와 절도 강도가 횡행하는 사회풍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정은 순수한 인간관계를 지키고, 그것을 배양해내는 마지막 보루다. 한 집안에 새 가족이 되는 며느리야말로 장차 소중한 아들과 손자손녀의 행복을 운전해 갈 키잡이가 될 사람이 아니겠는가. "푸성귀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면 암소 고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솔로몬은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구차한 변이라고 코방귀를 뀌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황금성에 산 부자중의 부자였고 그리고 현자중의 현자였다. 어쩌다가 가족간에 불신과 미움이 싹트면 그것이 커가면서 상처를 내고 고통을 주고... 그때는 이미 만금을 주고도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경험해 본 사람은 이말에 수긍이 갈 것이다. 화해하는 가정은 언제나 타산을 넘은 순수한 결합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장차 다가올 위기로 감지하고 있는 가족의 분열과 가족간의 단절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

특집

1991년도 사업계획

- 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
- 회원단체 사업계획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업계획

1991년도에 여협은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며 작년에 이어 국내입양 권장사업, 퇴폐문화 추방 운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1. 조직관리사업

- 1) 조직확대 및 회원단체 육성·지원
신임임원의 교례회를 가지며 비가입 여성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회원 단체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 2) 회원단체와의 유대강화
회원단체 실무책임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신입회원단체를 위한 가입 축하회를 갖는다.

2. 여성지위향상사업

- 1) 제28회 전국여성대회
2천여명의 여성운동자가 한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공동체 의식을 갖기위한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반영되도록 촉구한다.
- 2) 지도자연수
여성단체지도자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도자연수를 실시한다.
- 3)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사업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4) 매스컴모니터링 사업

대중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매스컴이 여성을 상품화하고 왜곡된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모니터를 모집하여 교육하며 이들이 정기적인 월례모임을 갖고 토론한 내용을 각계에 송부하여 반영토록 한다. 1년동안 모니터링한 내용을 토대로 매스컴모니터링 세미나도 개최한다.

5) 국내입양권장 사업

해외로 입양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고아의 국내입양을 권장하기 위해 세미나, 캠페인 등을 펼친다.

6) 퇴폐문화추방 캠페인

우리사회에 만연한 퇴폐향락문화를 추방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



3. 출판공보사업

1) 「여성」지 발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의 교육·정보자료로서의 기능을 하는 월간 「여성」을 연 11회 발행한다.

2) 「The Woman」 발간

한국 여성계의 중요 움직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The Woman」을 연 1회 발행한다.

3) 도서실 운영

여성관계 도서구입 및 자료교환을 한다.

4) 홍보활동 및 관련기관과의 정보교환

4. 국제관계사업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등 ICW와의 교류, 내방 외국인과의 교류로 국제친선을 도모하며 국제자료를 교환한다.

5. 소비자사업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교육(연2회), 시민교육(연32회), 모니터교육(연1회), 소비자보호세미나(연1회)를 개최하며 모니터를 활용해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를 선정, 조사·분석하여 소비자 의식고취에 기여하는 조사연구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6. 근로여성사업

1) 근로여성 고발창구 운영

남자에 비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연중 전화상담, 서신, 직접 방문 등으로 해결방안

매스컴 모니터 교육

일시: 90.3.21-22 장소: 여협 회의실 주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 지도자연수



을 상담해 주고 있다.

2) 제4기 노동상담 실무자교육
근로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의 여성간부 및 조합원, 직장여성 근로상담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 실무자교육을 실시한다.

3) 남녀고용평등법 홍보세미나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그 올바른 실행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홍보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다.

4) 그 밖에 직장내 폭행근절을 위한

간담회(연1회)와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연2회)와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한다.

회원단체 사업계획

대한간호협회

1. 조직강화

범간호 기구인 간호관련 단체장협의회(가칭)를 조직하며 기구조직 강화, 정관 및 재규정 검토, 회원증가 활동, 업무전산화, 장기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2. 간호교육수준향상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과정 승격추진 등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자료분석 및 표준안을 작성하여 교과과정을 개선한다.

3. 간호업무수준향상

간호관련법 개정, 간호전담체계 개선, 간호인력의 질적향상을 공통과제로 추진하고 임상(병원)간호·보건간호·학교간호·보건진료원 업무수준향상을 분야별 과제로 추진한다.

4. 사회경제복지증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전개와 취업활성화를 위한 유휴 간호인력 실태조사 및 재취업·미취업 회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간호보험제도 실시, 정

치 및 행정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간호전문 모니터 모집 및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5. 대 지역사회사업 강화

중앙교육심리위원회, 보건, 여성, 노동 등 정책관련 행정부처, 관련기관 및 단체에 참여하며 개인후원자 모집 및 복지 시설과 자매 결연을 하는 등 대지역사회사업에 참여한다.

6. 전문직관학립

제반 사회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간호윤리의식 양양을 위한 한국 간호윤리 지침의 발간을 계획한다.

7. 국제교류활동

국제간호협의회(ICN) 참여, 해외연수 안내, 국제기관 연수생 훈련,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 참여,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8. 신문사체제확립

간협신보의 면수 및 발간회수를 증대하며 재정자립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9. 출판사체제확립

간호학 도서취급 서점 개설을 계획하고 교과서, 보수교육교재를 출판한다.



10. ICN 서울총회기념사업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ICN 주관 워크샵에 본회 대표를 파견한다.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1. 절제운동

금주·금연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전국 45개 지회에서 절제 캠페인을 벌이며 청소년 절제회를 대상으로 글짓기 및 포스터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절제의식을 고취시킨다.

2. 성경공부

매월 마지막주 특별회원 성경공부를 실시한다.

3. 선교사업

대구지회와 서울지회는 매월 대구교도소와 용산경찰서 유치소에서 선교사업을 펼친다.

4. 장학사업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4회 5만원

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5. 기타

서울지회는 직장여성을 위해 연중 유아원을 운영하고 달력을 제작하여 군대, 교도소,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배부한다.

대한여학사협회

1. 영어공개토론회 (KAUF Forum)

"The Future of Woman: 100 days to 100 years"를 주제로 매월 셋째 목요일 미국공보원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내용은 Young Adults(1월17일), Mid-life Crisis:40s-60s(2월21일), Renewal: 60s and Up(3월 21일), Final Fulfillment(4월 18일)

2. 순영교실

60세 이상의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취미생활, 국악, 가요, 고전

무용, 요가, 수학여행, 견학, 레크레이션, 작품전시 등의 교육을 벌인다.

3. 출판사업

계간으로 협회소식을 발간하고 행사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한다.

4. 지부와의 유대강화

본부·지부 전체야유회를 갖고 지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5. 홍보사업

각 여자대학 동창회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여기자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대한조산협회

1. 조직강화

회원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회원 가입을 권장하여 회원수의 증가를 꾀한다. 영세지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지부관리 운영을 강화한다.



2. 자질향상 및 제도개선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조산 교육 교재 실행, 조산교육 이수자 실행, 조산 수습기관 현황을 파악하며 제23차 ICM참가를 위한 연구논문을 준비하고 홍보활동을 벌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한다.

3. 회원권익옹호 및 복지사업

병·의원의 조산사채용 의무화 및 직급향상·수당지급 건의, 조산사고응급조치와 조산업무 실행과에 따른 문제점을 건의한다.

의료보험 수가(조산료)의 현실화, 지급대상 범위에 대한 개선점 건의 및 전반적인 의료정책 제도를 개선한다.

원로회원의 복지사업, 탁아모 강사 교육에 따른 유휴조산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4. 조산소운영 활성화 및 모자보건사업

조산소 시설의 현대화 및 합동조산소운영에 관한 연구 재정립, 모범 조산소 견학, 영세민 모자보건사업 실시, 모자보건사업 적극 참여, 피임시

술 교육 등을 실시한다.

5. 연구사업

'조산학회' 발족을 위한 준비사업과 조산수습기관의 특혜에 대한 대정부건의, 조산사 국가고시 문제점 수정작업을 벌인다.

6. 홍보사업

조산사 관계자료를 수집하며 협회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한다.

7. 사회사업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건강 교육을 통해 대지역 사회교육을 실시하며 복지시설 후원자를 모집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

여성문제연구회

1. 교육 및 연구사업

지자체 실시에 따른 여성들의 역할, 지도층의 자세와 여성발전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단체역할 등을 내용으로 한 임원연수회를 가지며, 탁아교사를

위한 여성의식 교육 및 소그룹을 운영하고, 미혼남녀 결혼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과 새로운 이성관을 정립토록 한다. 또한 과소비 추방 및 건전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의 추진으로 알뜰바자를 개척하고 남녀 성차별 사례를 수집하고 조사한다.

2. 복지사업

취업주부 및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한 탁아원을 개설한다.

3. 기타

4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운영한다.

중앙부인회

1. 잠재능력향상사업

여성들의 잠재능력향상을 위해 회원자수대회를 개최한다.

2. 경제능력 향상사업

연중 기능교육반 교육생을 모집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의 취업을

알선하여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3. 권익옹호사업

교양강좌, 시민교육을 실시하며 4월에는 소비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4. 기타

3월에 회원권립을 착공하며 5월에 창립 38주년 기념식, 연말에는 불우이웃 방문, 성탄행사를 벌인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1. 가정교육 부활 사업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선,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부모의 올바른 생활태도로 가정교육을 부활하고 건전한 자녀교육으로 범죄, 폭력 등 사회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세미나, 캠페인, 정기교육강좌개설, 청소년 유해환경해소 등의 활동을 벌인다.

2. 환경오염 추방운동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하수오염의 주

원인인 생활하수를 줄일 각종 사업을 전개하며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한다.

3. 소비자보호 사업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시민·모니터·실무자 교육 및 시장가격 비교조사, 조사연구 및 상품테스트, 물가감시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4. 무료직업 안내사업

주부직업전문화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과출부, 출장요리사, 간병인, 산모조리인, 탁아모 교육과 알선을 하며 청소년에게 무료로 직업을 소개한다.

5. 아동보호 사업

무악유아원과 무악탁아원을 운영하며 국빈 국교생 30명에게 급식비를 지급한다.

6. 생활예절교육

전통문화 및 건전한 혼례와 예의범절의 보급을 위해 생활예절반을 운영하며 한복 및 장신구 전시실, 혼례·

7. 기타

제23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제6회 훌륭한 아버지상 시상, 제2회 선덕예·덕·지상대회를 개최하며 사임당학당, 예비신부교실을 운영하고 매주·첫길 바자회와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상품의 품질향상 운동, 선거풍토개선운동,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의식을 교육하는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가톨릭여성연합회

1. 지도자양성 및 훈련

각 본당 여성지도자 연수회, 가톨릭여성신앙대학 개설을 위한 심포지움, 자체계획과 타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도자양성 및 실무자 훈련을 한다.

2. 교육문화사업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정기 월례강좌를 갖고 외국어강좌, 피정, 여성신



학대학 개강 등의 교육문화사업을 펼친다.

3. 후원 및 봉사활동

연중 학비보조, 신앙대학후원 등 각종 후원활동을 하며 불우이웃을 위한 노력봉사, 염가로 수의를 제공하여 그 이익금으로 불우시설을 돕고 신학생을 후원한다.

4. 국제친선 평화증진

국제적 유대를 위한 국제행사에 참여하고 세계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와 교류활동을 벌인다.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

1. 여성문제 관련

'여성적 기업정신'을 주제로한 제5회 세미나를 개최하며 탁아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2. 회원관리

회원의 조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옛회원을 활용한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방법을 연구한다. 인천, 수원 등에 새클럽을 조직하며 음악회 개최를 통해 기금조성 및 홍보활동을 한다.

3. 직업 및 진로지도

신입여사원을 대상으로 직업의식 교육을 하고 전문직업 교육원을 운영한다. 고등학생,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를 지도하고 전문직종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한다. 또 기업체별 여직원 대상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4. 국제관계

세계연맹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갖고 한국 BPW 사업 및 현황을 널리 알리며 세계연맹 자료를 번역, 활용한다.

5. 기타

6월중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촛불의식의 밤 행사를 주관한다.

부녀복지연합회

1. 부녀복지세미나

부녀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부녀복지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제23회 부녀복지세미나를 6월중에 개최한다.

2. 청소년 수련회

8월중 부녀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상호협동정신을 도모하는 수련회를 갖는다.

3. 미담집 발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와 아동, 청소년들의 자기발전 및 사회 각 계층에 부녀복지시설을 홍보하는 미담집을 발간한다.

4. 시설 퇴소자 간담회

부녀복지시설을 거쳐간 전국의 모자세대들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고하며 퇴소 모자세대의 복지증진을 모색한다.

한국여성항공협회

1. 심포지움 개최

제19회 한일여성항공 심포지움을 4월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2. 교육사업

여대생 회원들을 대상으로 항공강좌 및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3. 비행대회 개최

전국모형항공기 및 행글라이딩 대회를 연 5회 실시하며 미국에서 열리는 제71차 세계여류비행사 총회에 참가한다.

4. 장학사업

항공계통을 전공하는 여대생 2명에 각 장학금을 수여한다.

5. 홍보사업

매월 항공정보를 발간, 배부한다.

대한미용사회

1. 회원의 권익보호 및 기술향상

미용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무신고업소 적발,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두발 및 피부미용용 기자재에 검사기준 기구설치 제도화 등에 힘쓴다.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국제 I.B.S. 대회 파견을 위한 한국선수 선발대회를 개최하며, 9월중에 미용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회원간의 친목과 기술향상을 꾀한다. 또한 미용인의 기술향상과 발전을 위해 미용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2. 조직강화 및 지도감독

비회원을 발굴하여 전원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며 원활한 회무처리와 체계있는 실무를 위해 각 지회, 지부를 지도 감사한다.

3. 회원 교육 및 회원관리

업소의 위생향상과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업주 및 미용사 위생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며 각 지회장 및 지부장 관리 교육 및 자질교육, 실무책임자의 행정교육 및 자질교육, 자율지도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또 미용업소에서 종사하는 미용사의 직업알선을 위해 무료 직업소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회원의 시간절약을 위해 미용업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각 지회 및 지부별로 일괄신고를 대행한다. 또 보조원관리를 위해 미용실에 근무하는 보조원의 등록제 실시를 제도화한다.

4. 사회질서확립

올바른 의식 고취를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불필요한 과대시설과 간판 및 부착물을 정비하고 국산품 애호를 위한 지도계몽, 불량화장품 추방 및 유사의료행위 지도계몽을 펼친다.

5. 장학사업 및 미용전문학교 설립 추진

생활이 곤란한 미용업 종사자의 우수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미용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미용전문학교신설을 추진하고 기존 전문학교에 미용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6. 기타

미용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을 위해 월간으로 미용회보를, 계간으로 에스테틱을 발간하며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일선장병위문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자수협회

1. 신부·예식옷 제작

한국식 전통 결혼식에 사용할 수 있는 간소한 신랑·신부의상을 제작한다.

2. 해외수출

간소한 소재자, 족자 등 해외에 다량 수출할 계획이다.

3. 강습 및 전시회

새로운 일을 모색하고 5월중 백화점 및 호텔에서 작품전시회를 갖는다.

4. 여가선용 지도

취미와 수입이 될 수 있는 수공예품 제작을 지도한다.

한국우먼스클럽

1. 사진전

청소년회원들의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갖는다.

2. 복지사업

불우아동, 무의탁 노인들과 결연을 맺고 매월 후원금을 보낸다.

3. 교양강좌

청소년들의 교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청소년 국제교류대회

청소년 회원 대표들과 지도 교사들이 제17회 국제교류대회에 참석한다.

5. 여성교양강좌

회원들의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강연

견학, 강습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한다.

6. 소비자보호

소비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

7. 기타

회보「성아지」를 발행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클럽에 관한 건의와 평가를 위한 연말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여성문화생활회

1. 문화생활 교육

생활 도자기 강습회 및 고적 답사를 하여 근검절약과 과소비 추방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2. 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바자회를 열고 일산 홀트 아동 복지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제존타서울클럽

1. 장학사업

연 2회 성적우수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 지원사업

근로여성 지도자연수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3. 국제교류

국제 존타봉사이념에 호응하며 국제 대회에 참가한다.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1. 교육사업

매주 목요일 예배와 성경강좌를 갖고 8월중에는 신앙수련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2. 선교활동

계간으로 문선교지「샘바위」를 매월 2천부씩 발행하여 군부대, 전경부대, 은행, 관공서 등지에 배부한다. 또 성가대입 5집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3. 구제사업

결핵환자 요양원과 고아원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구제품 및 위로금을 전달한다.

4. 봉사활동

연중 2회 선도 캠페인을 벌인다.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1. 국립묘지 및 현충탑 참배

연중행사로 매월 1일은 국립묘지 및 현충탑을 참배한다.

2. 산업시찰

안보태세 확립과 회원간의 화합조성을 위해 산업시찰과 관문점, 땅굴을 견학한다.

3. 장한 어머니상 시상

6월중에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녀로 성장시킨 회원을 선발하여 '장한 어머니상'을 수여한다.

4. 유엔참전국 미망인 천선교류 초청

6·25 제42주년을 맞이하여 전쟁후 우리나라 발전상을 소개하고 전적지를 순례하며 고인위로를 위해 UN표지를 참배한다. 1차년도인 올해는 동남아 참전국부터 시작하여 2개국을 선정, 1개국에 2명씩 초청한다.

5. 상부상조 활동의 전개

70세 이상인 고령회원을 위한 위안 잔치 및 회원의 화합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병상회원의 위문활동을 전개한다.

6. 호국보훈의 달 행사

제36회 현충일 행사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실시하고 국민보훈의식 고취 및 호국양양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7. 6. 25 참전비 순례

6월중 제9회 6·25 유엔참전 16개국 참전비를 순례를 한다.

8. 소년소녀 가장돕기 운동

각 시·도 지부장 주관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찾아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9. 기타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국가유공자단체의 긍지를 함양하며 미망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계도 및 대정부 건의를 한다.

대한약사회여약사회

1. 전국여약사대회

'91년도 전국 여약사대회를 5월 '사회속의 여약사'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1200여명의 여약사대표가 모인 가운데 개최한다.

2. 약대졸업생 오리엔테이션

전국 20개 약학대학 졸업생을 대상

제2차 근로여성 지도자연수교육



특집 • 1991년도 사업계획

으로 약사회 현황과 약사의 진료, 약사의 사회적 역할 등을 소개함으로써 예비약사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킨다.

3. 여약사가족 초청간담회

공직 및 언론계에 있는 여약사 가족을 초청하여 약사회의 현안문제를 알리 이해를 증진시키고 약권신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4. 여약사 탁구대회

체육행사를 통해 단합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

6. 장학사업

여약사 장학회의 기금을 확대하고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

6. 국제교류

FIP 등 각종 국제학술회에 참가하고 대한약사회의 국제교류사업을 적극 뒷받침하여 여약사의 전문을 넓히고 자질향상을 도모한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1. 계몽강습회

우리 농수축산물 이용실천을 위한 요리 개발 및 강습회를 연중 실시한다.

2. 전문 조리기능사 양성교육

연구회 부설 조리기능 훈련원을 통해 한식과 양식 조리기능사를 양성하며 국비 조리기능훈련생을 양성하여 실업자 고용촉진과 조리기능 자격취득을 위한 통신편육을 실시한다.

3. 식생활 행사

우리 농수축산물 애용실천을 위한 강습, 전시 및 시식회와 수산물 이용 요리솜씨대회를 개최한다. 또 수산물 식량화를 위한 강습, 시식회 개최와 식생활개선 협력학교 자모교육, 축산물 요리강습 및 전시·시식회, 콩식품 요리강습 및 전시·시식회, 제7회 전국닭고기 요리솜씨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4. 회원지도

연중 회원들을 대상으로 요리강습회를 실시한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1. 교육사업

회원자질향상과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잠재력 개발 및 지도력 확보를 위해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북한여성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와 건전한 소비자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2. 사회복지사업

불우 직업여성의 자녀를 위해 탁아비를 지원하고 장애자 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꽃동네, 양로원, 소년원 등지를 방문한다.

3. 국제교류사업

국외 여류인사를 초청 강연회를 갖고 사할린교포 위문과 중국 연변학교 도서기증 등을 계획하고 있다.

4. 연수회

3월에 지도자연수회와 연 2회 회원 연수회를 통해 조직활성화와 단체내의 공동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지회와의 유대강화,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대한영양사회

1. 조직강화

회관건립추진 사업, 광주·전남지부 및 대구·경북지부의 분회 창립 사업 등을 추진한다.

2. 교육사업

집단급식소 취업영양사를 대상으로 영양사 보수교육과 연 1회 학술대회, 연 1회 워크샵을 갖는다.

3. 조사연구사업

국민영양 기본법안 마련과 병원 급식기준, 보건교육(학교·사업체)과 영양사 직무개발, 보건소 영양개선 시범사업, 대학 커리큘럼 개정 등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을 펼친다.

4. 권익옹호

취업알선, 회원 민원처리를 위한 회원 상담실 운영, 영양사에 관한 규칙 개정, 국민영양기본법 제정 등 관련법 제정 및 개정, 영양사 처우개선, 취업확대를 위한 건의서 및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벌인다.

6. 대 지역 사회활동

연 1회 영양식단전시회를 개최하여 바른 영양정보 및 우리 농산물 애용 등 국민영양문제에 관한 사회여론을 환기시킨다.

6. 기타

연 10회 기관지를 발행하고 식이요법·소화자 등의 자료제작, 조사원 및 점검원 차출, 지도교육, 집계 점검 등을 하여 국민영양조사사업에 협조한다.

국제승공연합전국여성회

1. 교육

시·군·구 여성회를 대상으로 통일

사상 및 승공원리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회 임원에게 두익사상을 교육한다.

2. 세미나 개최

통일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여류인사 세미나와 미국승공연합과의 교류를 겸한 방미 세미나를 실시한다.

3. 캠페인 및 대회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남북통선대미 결의대회를 갖는다.

통일여성안보회

1. 교육 및 강연회 토론회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통일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시국강연회, 통일관련토론회를 갖는다.

2. 수련회, 웅변대회, 견학

연 2회 간부진 및 각 구 간부들의 수련회를 실시하고 9월에는 제6회 통일염원 전국여성웅변대회를 개최하여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진작시키며 편문점과 땅굴을 견학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한다.

3. 기타

여성들의 통일관을 소개하고 연구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소식지 「통일과 여성」을 연 1회 발행한다.



성의없이 제작되는 연말연시 특집프로그램 매스컴 모니터회

본회의 매스컴 모니터회는 1월17일 새해 첫 모임을 갖고 지난해 12월14일부터 1월17일까지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이었던 연말연시 특집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토론했었다.

1991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린 이번 모니터 모임에서는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에 있어 방송사의 무성의와 나태함, 상업주의적 성향이 문제시되었다. 또한 특집 프로그램의 주종을 이루는 각종 시상식 장면에서 땅에 떨어져 밟힐 정도로 많은 꽃다발이 수상자의 품에 안겨지는 모습이 반복되었는데 불필요한 낭비라는 인상과 함께 질서없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1.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MBC TV 12월29일)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유명인사들과의 좌담형식을 택한 것은 좋았으나 이러한 좌담 진행에 익숙치 않은 사회자가 초대인사들을 왜 초대했는지의 아심이 들 정도로 엉뚱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초대인사들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일관해 프로그램 제작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였다.

예를 들어 초대손님인 이미숙씨 자신과 관련된 질문은 하나도 없고 이미



숙씨의 부군인 성형외과의사의 의료기술과 시술은 받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진행되어서 이미숙씨 자신도 '내가 여기 왜 나왔죠?'라는 질문을 할 정도였다.

또한 봉두원씨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연륜과 업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선전을 함으로써 선거유세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하였다. 또한 미스코리아 서정민씨는 미스코리아들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다며 미스코리

아들이 합숙을 할 때 함께 목욕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해외동포 미스코리아출전자가 그곳에서 사진을 찍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등 선정적인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회자 이덕화씨는 '그래서 사진을 찍었나요?', '때도 밀었어요?'라는 질문을 하는 등 방송에 적합치 않은 내용들이 여과없이 방영되었다.

2. 일요일 일요일 밤에(MBC TV)



기존 코미디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좋은 책을 소개하거나 숨은 일꾼을 찾아 본다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방면의 인사들을 초청하는 기획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가끔 지나친 진행상의 무리가 엿보였다.

12월30일 '꽃바람으로 성냥끄기'라는 표기를 선보이면서 커다란 성냥통에 통째로 불을 붙여놓고 꽃바람으로 끄는 모습을 1번도 아니고 3번씩 반복했는데 이는 화재의 위험 뿐만 아니라 물자의 낭비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3. 10대 가수쇼(KBS 1TV)

12월31일 방영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수왕을 수상한 현철씨가 수상의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느냐는 질문에 '우리 댁이하고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기쁨의 순간에 자신의 고향사투리가 튀어나왔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전국의 시청자에게 방송되는 중앙방송의 특성상 몇 십년간을 동고동락한 부인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들렸다.

4. 기타 드라마 등의 방송에 나타난 문제점

1) 불의 나라(KBS 2TV)

12월25일 방영부분에서는 백찬규가 친구에게 '씨를 놔, 존놈아, 너 눈깔 똑바로 떠, 가죽이 남아서 주둥이 찢어 놓은 줄 알아?' 등 지나친 속어를 사용하였는데 방송에서 사용되기에는 너무 심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한장기록 요즘사람들(KBS 1TV)

전세집에서 세들어 사는 사장의 이야기와 우호적인 노사관계의 현장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리포터가 여러번 종업원에게 '돈을 뒤로 빼돌리는지 알아요?'라는 등의 부정적 질문을 하여 거부감을 주었다.

3) 까지 며느리(MBC TV)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프로그램이라 성격적 과장이 심한 출연자들의 연기가 많이 보이고 'MBC 소품'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보이는 의자가 소품으로 사용되었는데 소품처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4) 주병진·노사연의 100분쇼(MBC 라디오)

1월4일 방송될 공개방송에 초대손님으로 송창식씨 등 여러분이 나온다고 여러차례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1월4일 공개 방송에는 송창식씨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진행자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시켰는데 일단 청취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 못하는데 대한 최소한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고개숙인 남자(MBC TV)

시대적 화상이 뛰어난 소품처리, 완숙한 연기력이 돋보이는 드라마이나 '여자인 무엇으로 사는가'에서의 하희라가 살던 인천집과 너무 좁아한 집이 등장하여 세트설치상의 무성의가 지적되었다. ♣



이달의 여성계동향

쿼터제나 비례대표제 등 어느 하나도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부추기는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되어지지 않은 채 올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성계의 1, 2월은 어느 때보다도 분주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1월에 개전한 걸프전쟁에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도 구성되는 등 분주했던 여성계의 활동소식을 모아본다.

성진선 (내외경제신문 차장)

지자체에 대비한 여성계의 다양한 움직임 전개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체 실시를 위한 첫 지방의회선거야말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새 장을 열 수 있는 호기이고 무엇보다 지자체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당위성을 여성계가 한 목소리를 내며 구체화하기 위한 모임이 지난 2월 20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려 주목을 끌었다.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이란 이름아래 발기인대회를 가진 이날 모임에는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정례 전보사부장관 등 여성계 원로급에서부터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김금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등 학계, 정계, 여성단체, 전문직 여성들이 참석, 여성계의 단결을 과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유능한 여성후보를 발굴해 자격을 엄격히 심사한 후 선거 전과정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온라인계좌를 개설해 여성후보를 위한 후원금을 공개모금한다 ▲시민의 건전한 선거운동참여를 막는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실천사항으로 채택했다.

실천사항중 여성후보발굴이 현재 여성계의 가장 임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의회 진출에 뜻은 있어도 선거비용부담이나 정치라는 낯선 분야에서 남성들과의 경쟁, 낙선후 불계 될지도 모르는 불명예 등이 두려워 망설이는 여성이 많고 출마의사를 제시하는 후보대상자의 경우는 과연 '염불에는 관심없이 잣밥에만 눈을 돌리는 인물'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 까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후보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공명선거분위기 조성, 바람직한 후보자상 제시, 여성의 정치참여 당위성 설득 등을 펴 나가고 있다.

YWCA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바른살 운동'과 연결해 '지방자치제와 바른살' 운동을 펴기로 하고 서울, 부산을 비롯한 각 지방Y가 공명선거감시활동과 부정사례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후보자를 뽑기위한 투표지침도 만들어 배포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우리는 어떤

지방의회 의원을 원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지방의회 의원상을 제시했다.

연맹측은 도덕성, 능력, 정치철학면에서 이런 사람을 뽑자, 이런 사람을 뽑지 말자는 기준항목에 따른 의원상을 전국 각 지부를 통해 알리면서 공명선거운동을 전개중이다.

또 동 연맹은 20일 공명선거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부인회는 1월21일 대한변호사회관에서 서울거주 주부 2백명으로 구성된 불법선거감시단을 발족시킨 바 있고 주부클럽연합회도 공명선거풍토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기위해 기존 고발창구를 확대 활용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2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여성을 지방의회로,란 주제아래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한편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할 여성후보들을 위한 정치교실도 개설했다.

이미 전국여성지도자협의회가 여성정치지도자 재교육과정을 실시했고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도 제3기 여성정치교실을 열었다.

이밖에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과 관련 정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전·현직 여성의원들을 규합, 여성지원특별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평민



당은 1월 중순경 여성국을 여성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여성에 교육평등보장

교육법상의 학교 가운데 단 하나 금녀(禁女) 구역으로 남아있던 농협전문대학이 새학기부터 여학생을 뽑고 국방부도 95년 까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학군(ROTC)에도 여성을 받아들일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입학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은 전면 철폐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의 여군장교 양성계획은 군전산화와 행정분야에서의 인력활용을 위한 것으로 정부제2장관실에서는 이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관계인사에 조기 실시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올들어 전문대학과정인 국내 최초의 여성직업훈련원인 안성여자직업훈련원도 처음으로 학생을 모집함으로써 전문인력으로 크고 싶은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걸프전에 한국군 파병반대 어머니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월 12일

오는 3월 정식 발족할 '걸프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어머니 모임'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 정동소재 여연내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어머니모임에는 현재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참교육학부모회,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등 27개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비닐 덜쓰기 운동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지대신 장바구니를 들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92년말 까지 비닐 덜쓰기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이달부터 장바구니용 형겅주머니를 만들어 보급에 나섰다.

이 장바구니는 겹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특수 코팅된 형겅주머니로 접으면 손수건 크기만 해져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한YWCA도 장바구니를 제작, 각 지부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비닐대신 장바구니를 들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보조항 철폐

국무회의는 지난 2월7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대한 유보조항의 철폐를 의결했다.

79년 제3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약은 남녀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나라는 84년 이에 가입했다.

그러나 당시 가족법과 저촉되기 때문에 ▲혼인 및 혼인해소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자녀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아동의 보호, 후견, 재산관리, 입양 등과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가족의 성(性) 및 직업선택권 등 부부간 동일한 개인적 권리 등 4개항이 유보됐었으나 89년 가족법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마지막 항목(가족의 성(性) 및 직업선택권 등 부부간 동일한 개인적 권리)만 제외하고 철폐된 것이다.

정신대문제 성명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



합회 등 13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가이후 일본총리의 방한 전날인 1월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신대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무성의를 비난하고 이에 관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일본정부의 고위관리가 '정신대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된 일일 뿐 일본정부와는 무관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활동은 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반발, 국내 여성계가 10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정식기구로 발족했다.

평등의 전화 설치

모집·채용과정이나 직장근무시 성차별을 당한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평등의 전화'가 최근 한국부인회에 의해 신설됐다.

지난 88년부터 시행중인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범위반 사례를 상담하는 이 전화는 앞으로 ▲전화 및 면담을 통한 상담 ▲접수된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 ▲법률적 근거에 대한 전문조사 ▲해당업체에 대한 통고 및 해결작업 모색 ▲

법적 조치 강구 ▲사회여론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전화번호는 701-7321~3.

주부가사노동가치와 세제연구

여성에 대한 각종 세금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는 정책적 자료가 정부제2장관실에서 최근 발간됐다.

최광교수(외국어대)와 문숙재교수(이화여대)가 실제 연구를 맡은 '주부의 가사노동가치와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여성에 대한 불리한 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관계부처에 이에 따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 연구팀은 현행 민법상 세제는 남녀평등정신에 어긋난다고 분석하고 여성의 재산분할청구권,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8~12 시간으로 월30~6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현 가족법은 부부가 이혼시 당사자간 합의한 만큼, 합의가 안될 경우는 이혼 2년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법원 판례에 따라 받게 되어 있다. 이때 분할되는 비율과 액수의 형평이 문제이다.

여성이 남편에게 받는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기초공제 1억원과 결혼연수에 따라 연간 6백만원을 추가한 액수까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혼인중 합심해 모은 재산을 찾는데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이혼으로 받는 재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이 연구는 또 88년 현재 전체의 45%에 달하는 경제활동 여성에 대한 세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수입을 합산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실적 모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부 근로자에겐 탁아관련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직장탁아소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세제혜택을 주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

여성전문지

요리연구가

주부들이 조리분야에 직종을 선택한다는 것은 평소 가정에서 쌓은 주방경력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므로 편이 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직종은 자유업이라서 우리 주부들이 살림과 직업을 양립하여 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 직종은 자금이나 물리적인 투자없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적 문명적 변화는 우리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질적 변화와 가사노동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주고 있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남는 여가시간을 선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에따라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6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채득한 출장요리사 직업에 관하여 소상히 소개하므로 관심있는 주부들의 참여를 권장하기로 한다.

출장조리 직종의 소개

가정주부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주방경력을 갖게 마련이다. 그렇기때문에 주부들이 조리분야의 직종을 선택 한다는 것은 평소 가정에서 쌓은 주방경력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되므로 편이 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직종은 자유업이라서 우리 주부들이 살림과 직업을 양립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이 직종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 직종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다. 그것은 자금이나 물리적인 투자가 전혀 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장조리사의 보수는 각 개인의 조리능력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월 평균소득은 40만원~80만원 정도이나 조리솜씨가 뛰어나고 단골 고객이 많은 조리사는 성수기에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성수기는 11월~12월, 비수기는 7월~8월이며, 이 기간을 제외한 조리활동은 큰 기복없이 이어진다.

조리사의 1일 인건비는 잔치집 손님

수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20명까지를 기본으로하여 4만원이며 10명이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이 추가된다.

출장조리사가 되는 길

첫째: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학력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고학력자일수록 유리하다. 그것은 국가기능사 2급(조리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서 고학력자의 합격율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조리사는 평소 고객과 잔치행사에 관한 일로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이 없이 이끌려가는 상담이 된다면 상대는 보잘 것 없는 조리사로 평가하게 되고 일은 취소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고학력자가 훨씬 유리하다.

셋째: 평소 조리에 대한 취미와 타고난 센스와 솜씨가 있는 주부라면 더욱 유리하다.

넷째: 국가기능사 2급(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자격증 취득요령 별

진정숙 (출장요리전문인)





도설명)

다섯째: 자격증 취득후에는 조리사로서의 자질과 조리 기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설 조리학원에 개설된 연구반과정(3개월코스)에 들어가 보다 수준높은 조리강습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 부설운영하는 출장조리사 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출장조리 활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능사 2급(조리사)자격시험 요령

① 응시자격: 우선 질병이 없어야 하고 3개월이상 조리강습을 이수하였거나 학교 또는 직업보도기관에서 학과 90시간 조리강습 360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조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② 시험요령: 한국훈련직업관리공단에서 주관하며 시험은 연 4회 실시한다. 매회마다 1차는 필기시험 2차는 실기시험으로 구분 실시되며 1차 필기 시험에 합격되어야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 실기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③ 실기시험요령: 실기시험은 한식 일식, 중국식, 양식, 특수요리 5개 조리분야로 구분 실시된다. 응시자는 5개 조리분야 중 1개분야의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

④ 시험대비요령: 사설조리학원이나 조리 직업훈련원 또는 문화센터에 개설된 3개월 연수과정에 들어가 식품영양학 등의 이론교육과 조리실습을 통하여 시험에 대비 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참고로 사설조리학원의 1개월 수강료는 학원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12만원 정도이다.

조리사의 수련과정

국가기능사 2급(조리사) 자격시험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하면 앞서말한 바와 같이 보다 수준높고 전문적인 연구반코스에서 조리사의 자질과 기능을 배양 받게된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실력으로는 잔치집의 막중한 행사를 주관하기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출장조리사 역시 잔치집의 막중한 행사를 주관하고 그 행사의 성

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책임을 담당하여야 할 사람이기때문에 수련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수련과정은 연구반 코스를 수료하는 데로 그 학원에 부설된 출장조리사 클럽에 가입하고 경력이 많은 정 조리사를 따라다니며 출장현장에서 정 조리사의 보조역을 담당하면서 실무능력과 경험을 축적하여 가는 것이다. 이 수련기간은 통상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조리능력에 따라 수련기간 중에도 단독적인 출장조리활동이 가능하다.

출장조리의 실상

출장조리란 한마디로 경사집의 일을 맡아 화려한 잔치상을 연출하여 초대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잔치행사의 주 대상은 백일과 돌잔치를 비롯하여 집들이, 함을 받는 색시집, 귀한 손님초대(외국인, 사돈식구, 직장 동료 및 상사) 그리고 각종 파티(개업식 혹은 이전식) 등 다양하다.

출장조리를 요청하는 잔치집의 형편을 보면 대부분이 자수성가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집으로 검소하고 건전하게 살아가는 가정이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출장조리의 주문은 주로 친·인척이나 동창들 소속된 조리사 클럽, 각종 종교단체, 파출부 사무실 등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들어오고 있으나 조리사의 조리능력이 별로라면 그 주문은 1회용 주문으로 끝이 나고 만다. 단언적으로 말하여 고객을 확보 유지하는 수단과 방법은 오로지 조리사의 손끝에서 나오는 조리솜씨 뿐이다.

출장조리에 등장하는 조리의 형식은 다양하며 메뉴 또한 매우 다채롭다 우선 우리나라 정통음식에 통달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잘 길들여진 일본요리를 비롯한 중국요리와 서양요리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장조리사는 타분야의 조리사들에 비하여 1인 다역의 기능을 갖는 조리사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분야의 조리사는 부단한 노력과 창의로서 새롭고 다양한 메뉴와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하여 갈 수 있는 조리사만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

조리사는 이미 책정된 예산에 맞추어 잔치 손님들의 성향(성별·손님수, 연령층, 손님들의 수준)에 합치되고 계절과 기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잔치상의 메뉴를 짜서 잔치집 주부와 협의한다. 각종 재료의 구입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당일 이른 아침에 구입하며 조리사는 현지로 도착하자마자 잔치상에 오를 그릇부터 점검한다. 제아무리 환상적인 요리를 만들어내도 그 요리를 담는 그릇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요리는 작품으로서의 생명을 잃게 되므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가정에서의 잔치행사는 실내 분위기가 조성되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온하고 아늑한 감격을 주는 실내조명에 화려한 잔치상이 연출되고 경음악의 멜로디가 잔잔히 흐르며 잔치상에 음식맛은 환상적일 때 손님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낙원으로 빠져들 것이다. 때문에 출장조리사는 음식솜씨도 중요하지만 보는 요리, 듣는 요리, 느끼는 요리도 입체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보람과 긍지

결혼이후 조리사로서 내 생활을 가질 때까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으로 가사에만 전념하여 왔다. 이것은 가정주부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남편의 사회적 기반이 정착되고 자식들이 성장하여감에 따라 어느날



출장조리에 등장하는 조리의 형식은 다양하며 메뉴 또한 매우 다채롭다. 때문에 출장조리사는 타분야의 조리사들에 비하여 1인 다역의 기능을 갖는 조리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음식솜씨 뿐만 아니라 듣는 요리, 느끼는 요리도 입체적으로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갑자기 '나는 무엇이나'라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고 나의 앞날에 미래상을 그려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며느리 셋을 보게된다. 거기서 태어나는 손자 손녀가 최소한 4~5명은 될 것이다. 자칫하면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에다 텅빈 집이나 지키는 사람으로 변신될 것이 눈에 선하다. 그리고 며느리들로부터 자리밀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시어미의 권위를 행세하려다 고부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집안의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 되거나 않런지, 나는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온몸에 오한과 현기증마저 느껴졌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내 자리와 내 몫도 찾아야지 그리하여 나머지 여생을 남을 위하여 베풀고 사는 인간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그로부터 나는 동분서주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 적성과 취미에 맞는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여 일하고 있다. 나는 일도 찾고 내 자리와 내 몫도 찾았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전력 투구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이틀간을 계속하여 경사집 잔치를 훌륭히 치루고 오는 길이다. 많은 감사의 말과 박수도 받고 팁까지 두둑히 받았다. 지금 내몫은 파김치가 되었으나 마음은 마냥 즐거워 뭇노래가 절로난다. 그렇다. 남들이 말하듯이 출장조리란 곳은 일이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잔치판에 화려하고도 환상적인 맛의 향연을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여주며 나의 남은 여생을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오늘의 나는 무한한 긍지와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 ♣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전략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선거의 실시와 함께 펼쳐질 지방화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긍정적 측면과 지역개발에 밀려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크게 파괴되고, 오염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지에서는 안기회 국제환경문제연구소장의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전략'이라는 주제로 I.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중요성 II. 지역개발과 환경영향평가 III. 환경관리와 국민참여를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I.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중요성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

오랫동안 인류는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뿐인 지구의 자연을 파괴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켜왔다.

그 결과 우리의 생존고리인 지구는 오존층파괴, 온실효과, 산성비, 산림의 황폐화 및 적조현상 등으로 크나큰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추구의 이상과는 달리 인류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같은 지구환경의 위기를 초래한 결정적인 과오는 지구와 한 국가의 물리적 한계를 포괄적인 생태학적 자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다.

지구나 한 국가의 환경용량은 명백하게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는데도 지



안기회 (국제환경문제연구소 소장)

금까지의 성장론자들은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욕망이 향하는 대로 무분별하게 고도화·거대화·대량생산과 대량소비체제로 끌여가고 있다.

아직도 현대산업사회는 인구, 토지 이용, 생산 및 소비면에서 기하급수적

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패턴은 인구폭발, 식량문제,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문제 등 생태학적 위기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무분별한 외욕적인 경제개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로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미래학자들은 90년대 이후의 최대난제를 환경문제라고 서슴없이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와 개발우선 정책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년래 큰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금년부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의 서장을 열게 된다.

특히 우리의 경우 현재와 같은 공유



물에 대한 부족한 시민의식과 환경보호시설 투자에 대한 기업자세 그리고 정부의 환경우선 정책의면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골격이 갖추어지고 지역환경을 지역주민이 자치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 발전은 오직 개발과 성장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가시적인 개발과 근시안적인 물량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자연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는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중앙이 마련한 하향식 지역개발계획의 충실한 집행자적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지금까지의 이러한 양상을 크게 변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

선관직의 선거공약에서부터 점화될 지역개발전략은 정책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활동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역의 공공투자나 서비스담당을 위한 재정부담의 압박을 가해와 경제적 발상에 치우칠 정책선택을 불가피하게 할 우려가 있다.

지역개발의 목표는 주민복지의 극대화이다. 이 목표는 경제지표의 성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쾌적성 추구의 자연환경보전이나 사회의 형평성 또는 안정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개발과 보전', '성장과 복지' 등 현실적 선택에 설 경우 전자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우리는 빈약한 이유로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경제개발 우선정책을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길들여진 중앙집권지원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유

치에 혈안이 되고 자연경관의 보전측면보다는 상품화 시키는 경쟁에 앞장설 것이 예상된다.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지역개발이란 국민들이 협동하여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때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협동적 노력의 연속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개발은 양적 성장의 일면만을 강조해 온 나머지 중앙과 지방할 것 없이 환경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두번씩이나 겪는 수질오염 파동이나 대도시의 가로수가 대기오염으로 고사되어가고, 쓰레기처리문제로 국민반발이 잦아지는 등 환경문제는 그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관리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거대한 산업군에 의한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에 대하여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도 환경파괴와 오염이 나쁘다는 것만 피상적으로 알 뿐 그 피해가 실제로 주민각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로운 것인가 하는 문제의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도시화, 공업화의 고도화와 대형화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파괴 내지 오염시키면서 점점 거대 기술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연속에서 국가의 GNP는 오르는 한편 한 지역의 구성요소인 대기·물·토양 등의 유형·무형의 천연환경은 오염 내지 파괴되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지역개발과 환경제의 고갈은 필연적인 함수관계에 있는데도 아

적까지 우리는 지역개발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은 무조건 생활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믿어왔다.

지역개발의 폐단

그러나 개발의 주역인 기업의 위치에서 보면 지역재정이 빈곤할수록 개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니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개발은 고용의 증대로 보고있으나 전문기술능력을 축적하지 못한 현지 국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고,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이 고작이다. 오히려 농업의 기반을 흡수해 버림으로써 지역의 자발적 개발을 저해하고 지가상등을 통해 국민생활을 압박하기도 한다. 또한 세수의 증대로 인한 재정개선보다는 교부세 감소로 상쇄되고 거꾸로 유지관리비 증대라는 재정수요의 비대화를 몰고와 실질 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악화된 지역환경은 지역사회의 황폐화와 주거환경의 열악화를 몰고 올 가능성마저 있게 된다.

한편 관광산업의 개발도 들고 있으나 일부건설업자, 운수업자 또는 숙박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계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개발이익의 환원이 불가피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불가역적 환경파괴라는 지역국민 대대로 살아온 보급자리 정신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장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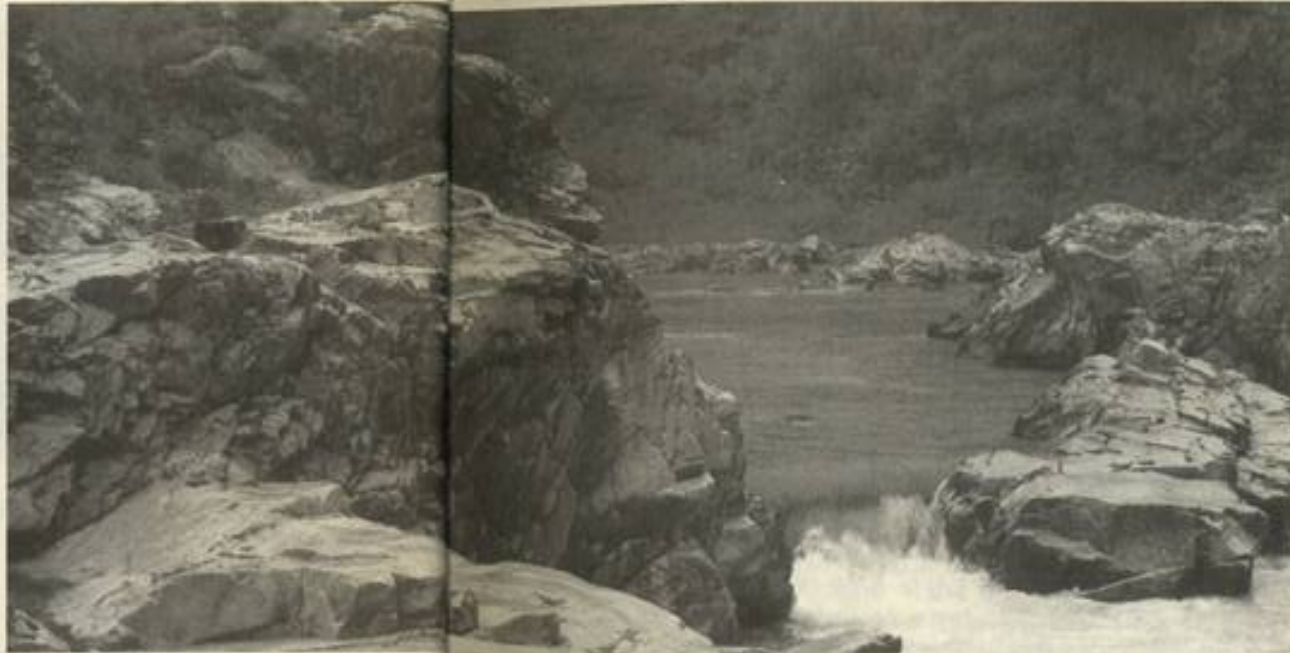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개발의 방향

그런데 아직까지도 민주제도는 물론

공산주의까지 GNP신화는 경제개발의 대명사처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진적인 대규모 중화학공업 정책 등의 추진으로 대량의 오염물질과 폐기물 등을 자연계에 방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생산에 큰 타격을 주게 되며 농어민의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대기·물·자연환경 등의 환경자원은 대부분이 소유권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써 지역사회나 제3자의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없이 마구 사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개발도 공업단지 중심으로 개발한 관계로 인구의 급증과 소비활동의 증대로 지역생태계의 지정능력을 점점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가시적이고 현시적인 지역개발은 생물권의 보호와 보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쾌적성을 충족시키고, 주민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적·재정적 생물 및 무생물계의 자원이용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생물권 보호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학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하며, 생물 및 무생물 자원의 기반 및 활동의 장기적 이익과 손해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역환경보전이란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물·자연경관 등 유형·무형의 환경요소에 대하여 현재국민의 필요와 열망에 부응한 잠재력을 유지하면서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최대의 지속적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인간의 생물권 이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뜻한다. 따라서 지역환경보전은 그 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을 포함한 적극적 유지, 지속적 이용·회복 및 증진을 뜻한다. 여기서 생물자원의 보전이란 특히 동식물을 비롯하여 미생물 및 이들에 의존하고 있는 환경내의 무생물계의 요소까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보전도 지역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역국민을 위한 것이다.

지역개발은 인간의 목적을 경제성장 및 생물권 이용을 통하여 달성하는데 대하여 환경보전은 이러한 생물권 이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또한 지역국민의 환경보전활동의 유지와 지속에 관심을 갖는 것은 생물자원의 성장(재성장+회복)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며 윤리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우리는 지역환경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다기 보다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어 쓰다 잘 보전하

여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환경철학을 기초에 깔고 있다.

그리고 지역환경보전은 여러분야에 걸쳐 적용해야 할 활동분야는 아니다. 그러므로 지역보전은 관련 자연자원의 유지와 긴요한 생태학적 과정과, 유전적 다양성을 잘 보호하고 그 이용에 현재인은 물론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관리의 한 측면인 것이다.

개발과 보전은 통합된 개념

일상적으로 생물자원 보전의 특정목적은 우선 토양의 재생과 보호, 자양물의 재순환, 물의 정화 등 인류의 생존과 개발이 필수적인 생태학적 과정과 생물부양체계의 지속에 두고 있다. 다음은 주요산업 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농어촌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종(種), 생태계 특히 어류 기타 야생생물, 산림 및 초지의 지속적 이용과 보

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을 지역주민의 생존과 복지에 필요한 수많은 조건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다른 상관계발 변수와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지역생물보전전략은 개발전략과 별개의 개념이 아닌 통합된



지금까지의 가시적이고 현시적인 지역개발은 생물권의 보호와 보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쾌적성을 충족시키고, 주민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인적·재정적 생물 및 무생물계의 자원이용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전략은 환경보전과 양립되는 개념으로 보아 '선성장·후보전'의 개념으로 성장과 개발론자들의 자의로 일관되어 왔다. 성장론자들은 환경론자들의 지역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거론할 때 마다 반성장적 또는 개발지역이라는 논리로 일축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환경문제는 전국토로 확산일로에 있으며 남산의 소나무는 83%나 고사되어가고, 하천오염으로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에도 부적하여 농작물에 큰 타격을 주며, 해양오염으로 해조류와 어류가 크게 감소추세에 있어 이러한 환경문제까지 지방자치에 떠 넘기게 된 셈이다.

개발과 보전의 통합전략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상호의존적이거나 상충적인 경우는 농어촌의 사

한국통신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 스스로 직장은 결혼전 잠깐 다니다 그만두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열중하지 않았고 기업측에서도 여성의 인력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사회 제반 여건이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됨으로써 여성도 직장을 평생직으로 생각하게 되고 기업도 결혼후에도 평생 근무하는 여성인력을 사장시킬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속에서 보조적이고 단순한 업무만 맡아왔던 여성들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던 여성 인력을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직원 능력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 기업을 소개하는 난을 마련하였다. 그 첫번째로 여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통신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여직원 능력개발의 일환으로 실시한 우수여직원 해외연수('90. 10. 15~20)에서 일본 전산화 주식회사의 국제부장으로 부터 여성활동현황을 소개받고 있다.

제로 설명될 수 있다. 농어촌사회는 생물자원에 직접 의존하게 되므로 그들의 유일한 생물자원마저 파괴하게 되고 종의 멸종위기로 몰아갈 우려마저 있게된다. 이들은 지역의 수 백년 자란 아름드리 나무와 관목을 벌채하여 팔게 되고 연료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존자체가 불안정하고 일시적 번영조차 가망이 없을 경우에는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황폐화를 초래하게 되고 홍수와 가뭄 등으로 더 큰 재앙의 악순환을 불러 오게 된다. 문제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산림벌채 등으로 하천유량을 감소시켜져와 댐 났을 때 생물의 생산을 줄게 하고 댐 밑 저수지에 퇴적물로 발전소 및 수원지의 수량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윤리적 뿐만 아니라 환경적·생태학적 변수로 개발 변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에스판 댐으로 인한 환경문제처럼 바람직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 장기적 차원의 지속적 경제성장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된 하나로 보아 소득증대 등의 양적 개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고리인 맑은공기, 청정한 물, 깨끗한 토양 등의 불가결한 환경요소의 유지·보전까지로 포함하는 발전을 지향하여야 한다.

지자체 실시와 환경문제 해결

어찌 되었든지 지방자치는 급변에 부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민주화를 위하여 더 없는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들뜨기보다는 국민

들의 덜 훈련된 정치의식 등 문제점을 감안하여 학습비용과다, 행·재정의 새로운 지출과 수요, 절차상의 복잡성의 문제까지도 예의 검토되어야 한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지자체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환경파괴와 오염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자각적 노력이 지방정부의 시책방향으로 집중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쪽으로 몰고갈 것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를 통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경우 환경문제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한 예가 많다. 그리고 지방행정에서 중앙에서도 입법화되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하여 지역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는 희망적인 사례도 있다. 우리가 경제해야 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업

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관성으로 몰고가면서 지역환경용량에 넘치는 기업유치로 인해 '계획의 실패'를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자치체의 선거 공약 방향을 '맑은 공기로 숨쉬게 하는 일, 청정한 물을 공급하는 일, 녹지대를 형성하는 일,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 국토를 낙원으로 가꾼 스위스를 일러 재화의 왕국인 일본 보다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있다. 이제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직·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마다의 환경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현재인은 물론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쾌적한 지역환경보전을 향유하게 할 엄숙한 책무도 느껴야 할 일이다. ◆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된 하나로 보아 소득증대 등의 양적 개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고리인 맑은공기, 청정한 물, 깨끗한 토양 등의 불가결한 환경요소의 유지·보전까지로 포함하는 발전을 지향하여야 한다.



해와 협조로 여직원 능력개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제2장관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노총 등 관계기관을 초청, 관리자, 노동조합대표, 남녀직원 등이 참석하여 사례발표, 분임토의, 토론 등 2회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여성인력 활성화를 위한 운용상 또는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사, 직할기관, 사업본부 등 인사담당 실무자 회의도 개최하였다.

우수여직원 해외연수교육 실시 및 정보통신 요원화

또한 국제적 안목배양 및 직장내에서의 역할인식을 위하여 우수여직원 20명을 선발하여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TT) 등 4개 기업에 1주일간 해외연수케 하여 여직원의 전문화대를 통한 동기부여에도 힘쓰고 있으며 금년도 2차에 걸쳐 여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 한다.

한국통신은 남녀직원의 의식전환 유도, 여직원 자신의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등 여직원 능력개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에 그치지 않고 정보시대를 주도해 나갈 한국통신의 새로운 직무담당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특히 PC 교육을 통해 전여직원의 정보통신 요원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난 90년도 제1단계로 설정하여 PC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어 체계적이고 완전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전 여직원의 PC 활용능력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 결과는 향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계획에 있다.

또한 본격적인 PC교육 실시의 기



이해국 (한국통신사장)

반마련을 위하여 각 산하기관별로 3천여대의 PC를 보급하여 888명의 여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제2단계 목표인 PC교육의 전기관 확산과 수준향상 도모에 중점을 두어 연수원이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PC교과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며 '여직원 컴퓨터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 모범기관 전학'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컴퓨터 교육이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우수 전문인력 양상을 위하여 해외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1명을 미국 매사추세츠대학 등에 파견중이다.

여성전담 운영창구 개설

여직원의 지위향상과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지난 2월7일 개설, 운영에 들어간 신사전화국 영업부의 '여성전담 운영창구'는 부장 1명, 과장 3명, 직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모두 여성이다. 과거 남성들만 담당해 오던 영업 마케팅, 홍보, 전화가입 업무 등 주요업무 뿐만 아니라 영업부서

총책임자인 부장을 여성이 담당하게함으로써 종래 남성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오던 업무를 여성 직원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케 하고 이를 계기로 여성의 활동영역 확대와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사회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의의를 갖는 한편 창구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고 보다 섬세하고 친절한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 믿어진다.

여직원 승진·보직기회 확대

인사면에서도 자질이 있고 능력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여직원에게 승진의 기회와 보직을 확대하여 지난해 과장으로의 승진 3명, 대리승진 67명, 5급(주임급)으로 승진 453명 등 1,422명이 승진을 하였으며 본사, 사업본부 등 기획부서에 6명을 배치하였다.

여직원 복지향상에도 힘써 90년 9월1일 학자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여직원의 양육자녀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각종제도에 있어 여직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제도개선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 한다. 그 외에도 사보에 여성 고정칼럼을 설정하여 여직원 능력개발 분위기를 확산해가고 있으며, 연수원에 여직원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3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창조적 여직원 등 3개 과정의 통신교육 230명,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 일어 등 외국어 전문기관 교육 528명 등 여직원 능력개발 교육에 주력하고 있었다.

인간 중심의 경영실천

한국통신은 지난해 민영화와 개방, 경쟁이라는 환경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모습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여 '정보·통신·인간의 융화'를 기업이념으로 하는 기업문화 헌장을 선포하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정보사회의 선도기업으로서 창조와 경쟁, 능률을 중시하는 기업문화 창달과 함께 항상 고객과 함께 하는 인간중시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드는 도전의식 함양, 격동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스스로의 부단한 능력개발을 통하여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한국통신 가족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는데 남녀직원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여직원 능력개발에 따른 인력활용의 극대화

그동안 직장의 꽃으로 인식되어 왔던 여직원들 스스로 직장은 결혼전 잠깐 다니다 그만 두는 곳이라고 생각하여 단순, 보조적이며 창의성 없는 업무만 계속해옴으로써 직장생활에 불만을 갖게 되고 능력개발에 무관심하게 되어 승진, 보직 등에 기회에서도 자연 소외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악순환을 끊고 이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이 한국통신의 여성능력개발 계획에 그대로 드러나 보였다.

여직원의 의식개혁 및 직업의식을 고취시켜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한 자아실현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한편으로는 여직원 능력개발을 통한 자아극대화를 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킨다는 것이었다.

열심히 노력하는 여직원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다른 모든 기업에도 확산되길 바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직장에서의 활동영역 확대와 역할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추세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의 여성인력 점유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활용의 극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영합리화의 관건이라 여겨진다. ♣

과거 남성들만 담당해 오던 영업 마케팅, 홍보, 전화가입 업무 등 주요업무 뿐만 아니라 영업부서 총책임자인 부장을 여성이 담당하게함으로써 종래 남성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오던 업무를 여성 직원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케하고 이를 계기로 여성의 활동영역 확대와 지위 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의 활동영역 확대와 지위향상 및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1.2.7. 개설된 신사전화국의 '여성전담 운영창구'.

대전직할시여성단체협의회



장선애 회장

대전직할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989년 직할시 승격으로 인해 충남과 대전이 분리된 후 3월14일 8개단체가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다. 여성단체 상호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의 통일된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매월 5일 정기월례회 모임을 갖고있다.

초대회장에 장선애(전 충남여성단체협의회회장)씨가 취임한 이래 조직력 강화, 단체화목과 상호유대강화에 중점을 두어 지금은 회원단체가 13개로 늘어났으며 시정에 발맞추는 성숙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 3월30일 창립 제1주년 기념 및 건전소비실천결의대회를 갖고 오덕균 충남대 총장의 '한국경제의 과제와 여성지도자의 자세'라는 주제강연이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 풍조가 사회악을 유발시키고 국민적 위화감과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경제위기를 몰고오는 심각성을 지시하여 범국민적 건전소비 생활 실천결의문 채택 및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93 대전엑스포에 대비하여 8월9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오사카꽃박람회에 10개 단체장들이 선진지견학

을 다녀왔는데 질서있게 움직이는 대회를 보며 대전지역의 여성들도 훌륭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9월5일 '제2회 대전직할시 여성대회'가 10개 단체회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다. 이화여대 백영옥 교수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제1강연이, 한남대 김세열 교수의 '절제와 분수의 생활운동'의 제2강연이 있었으며, 끝으로 힘들이 이룩한 경제성장 위에 다함께 잘사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모범가정표창, 영세가정 후원금 전달,

모범여성표창 등 불우노인 5명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다.

지난 11월5일에는 우리사회에 번지고 있는 5대 사회악 추방운동의 일환인 피폐문화 추방캠페인을 5개구청 여성단체협의회별로 1,000여명이 모여 취지문 낭독 및 결의문 채택과 아울러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1월19일에는 여성단체지도자 200명이 모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여성지도자의 자세 세미나를 개최하여 백재대 이선희 교수의 주제강연과 충남대 송백현 교수의 '현대여성의 사회참여와 책임'이란 강연으로 오늘을 사는 여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1991년 1월15일 직할시승격 3년째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각 여성지도자간의 인사교환으로 상호유대강화를 도모하며 각단체에 대한 협력과 이해증진의 자리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개최된 신년교례회는 대전직할시장의 인사말씀과 여성지도자 300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한 분위기 속에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93 대전엑스포를 앞둔 대전직할시여성단체협의회는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기위해 여성단체들이 앞장서서 일할 것을 결의하였다.



▲ 제2회 대전시 여성대회

▼ 여성지도자 세미나

여성지도자 세미나

대전직할시여성단체협의회는 11월19일 상오 10시30분 신신농장에식원에서 여성지도자의 자세를 확립하기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매일 1990년 11월19일자)

제2회 대전시 여성대회 개최

대전직할시여성단체협의회는 9월5일 대전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대전직할시여성대회를 개최했다. 각 여성단체 회원 및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장선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민주화의 물결과 동서독의 화해는 우리여성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남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여성들의 올바른 시대관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2천5백여 간호사들의 자질향상과 간호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은 대전간호협회 대전직할시 초대



지부장 신창례씨(58, 중구 태평동)에 대한 대전직할시장의 공로패수여 및 모범가정·모범여성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또한 이화여대 백영옥 교수(정치외교학과)의 「지방자치제와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강의와 한남대 김세열교수의 「절제와 분수의 생활운동」이란 주제의 강연도 마련됐다.

(대전일보 1990년 9월5일자)

농산물직거래장 개설

전국주부교실대전시지부는 2월8일부터 11일까지 주부교실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했다.

각종 잡곡류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일 이날 장은 부여군 세도면농협과 자매결연하여 열리게 된다.

주부교실은 이날장 이후에도 월 1회씩 계속해서 장을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매일 1991년 2월6일자)

생활용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페품수집 경진대회

한국부인회 대전시지부와 새마을부녀회 대전시지부는 지난 10월말과 11월초부터 각각 폐품활용작품 공모 및 폐품수집기간을 정해 자원재활용의 생활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한국부인회에서 실시하는 생활용품 재활용 아이디어 작품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는 제품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

지방여성단체소식

용하다가 버리는 재물을 이용한 것, 생활용품에 이용한 각종 아이디어 작품, 학교 직장 등에서 학습도구나 생활현장에서 재활용품으로 직접 제작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작품이나 창의적인 작품 등이다.

한국부인회 대전직할시지부 장임순 부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또 재활용 방법을 이용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평소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새로운 창의적인 재활용 아이디어작품을 이번 기회에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제 지난 10월13일



폐와 항락으로부터 우리사회를 구하자는 특별선언을 함으로써 규제를 한층 강화해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을 전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했다.

이렇듯 요즘 각계에서 자원재활용운동이 일고 있는 것은 비단 자원남용의

방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대응책도 되며 과소비의 근절책도 된다는 뜻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전매일 1990년 11월14일자)

▲ 91년도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
▼ 건전소비생활 실천 결의대회



협의회 소식

제33차 정기총회 개최, 임원개선

제33차 정기총회가 2월26일 본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의원 108명 중 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는 1990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9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통과가 있었다.

이어 임원선출이 있었는데 김천주 임시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경오(전 회장), 박정호(간호협회 회장) 2명이 임후보한 회장선거에서는 김경오 회장이 89표 중 60표를 얻어 11대 회장으로 재선됐으며, 4명이 임후보한 부회장선거에서는 이연숙, 정연심, 김옥환씨가 각각 62표, 60표, 51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당선된 11대 상임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김경오(전 회장)

부회장: 이연숙(국제존타서울클럽 부회장)

정연심(대한여약사회 회장)

김옥환(전 부회장)

서 기: 강인자(국제존타서울클럽 이사)

김희순(대한여약사회 위원장)

회 계: 김경애(한국여성향공협회 이사)

백정란(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감 사: 이요식(국제존타서울클럽 이사)

양은숙(대한간호협회 감사)



신임원 약력



이연숙 제1부회장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서울 중앙여자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 한국가족계획협회 이사
- 현 주한미국공보원 상임고문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사
- 언어교육재단 이사
- 한국UN협회 이사
- 국제존타서울클럽 부회장



정연심 제2부회장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조직관리 위원장
- 현 한국에링주식회사 사장
-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이사
- 대한약사회 부회장
- 여약사회 회장
- 국제존타서울클럽 봉사위원장



김경오 회장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길포드 대학 졸업
- 공군 소위 임관 (1951년)
- 공군 대위 진급 (1955년)
- 예비역 편입 (1956년)
- 국제존타서울클럽 회장
-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
- 현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상임위원
- 대한항공협회 상임부회장



김옥환 제3부회장

- 강남사회복지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
- 사단법인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장
- 현 사회복지법인 협성여자기술 학원장



강인자 서기이사

-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 졸업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미국 Control Data 회사 근무
- 국제존타서울클럽 총무
- 현 호텔 LOTTE 연회예약과 지배인



김경애 회계이사

- 개성고등학교 졸업
- 뉴욕 윌프리트 아카데미 졸업
-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회장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상임이사
- 한국여성항공협회 이사
- 한국부인회 이사



이요식 감사

-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 호주 앨본대학교 체육학과 이수
- 서울YWCA 총무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한국소비자연맹부회장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감사
- 현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 팀장



최희순 서기이사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졸업
- 동명여자고등학교 화학교사
- 서울 임상약학연구회 부회장
- 종로구 약사회 부회장
- 현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 서울카톨릭약사회장



백정란 회계이사

- 성균관대학교 교육과 졸업
- 재무부 5급공무원
- YWCA 위원·이사
- 성서유니온 이사·이사장
- 지역사회학교 교육감사
- 현 (주)인덱코 대표
- 전문직여성클럽
- 한국연맹회장



양은숙 감사

- 서울대 의과대학부속 간호학교 졸업
-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원 수료
- 전남대 의과대 부속병원 간호과장
- 전남대 의과부속 간호전문대학 강사
- 현 서울중앙대학교 의과대학부속
- 한감성심병원 간호과장
- 대한간호협회 감사

취임사



회장 김경오

지난 3년간의 활동이 인정받아 다시 당선된 것으로 여겨져 무엇보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3년전 여협이 분쟁에 휘말려 시끄럽던 시기에 회장직을 맡았었고, 그 후유증이 1년 반이나 계속되어 회장으로서의 사업구상이나 발전계획보다는 우선 여협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며 다독거리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남에게 굶힐 일 없이 살아온 저로서는 여협의 화합을 위해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투른 가운데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고 2년이 지나니 회원단체들이 화목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집안이 화목하니 사회를 향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성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또한 여협회장으로서 장기계획도 구상할 정도로 일을 할만한 시점에 임기가 다되어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3년간의 중책을 맡고 보니 3년전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각 분야의 여성문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지방의회의 여성참여문제를 비롯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북여성교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여성취업확대를 위한 문제 등, 이밖에 일일이 거론할 수조차 없이 산적한 여성문제를 분류하며 우선순위를 매기고 급한 것부터, 장단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단체를 영입하며 회원단체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지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확대를 위한 재정위원회 역할 강화,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지방여협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국제화시대를 맞아 해외에 한국여성계를 소개하는 일도 여협의 중요사업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여성관련 문제에 대해 여성계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우리 회원단체들이 힘을 합해주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낼 수 없음을 물론입니다. 지난 3년과 같이 앞으로 3년도 열심히 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다시 마음을 굳게 다집니다. ♣

“지난 3년간 여협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직관리위원회

위원장 : 정연심 (대한여약사회 회장)

위 원 : 고방자 (가톨릭여성연합회 이사)

김덕현 (변호사)

박애주 (숙명여대 물리학과 교수)

박정호 (대한간호협회 회장)

이연숙 (국제존타 서울클럽 부회장)

박영혜 (숙명여대 불문과 교수)

박용옥 (성신여대 박물관장)

신동식 (스포츠서울 과학부장)

오증자 (서울여대 불문과 교수)

최창섭 (서강대 신학과 교수)

기획연구위원회

위원장 : 박용언 (대한여학사협회 회장)

위 원 : 권오득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숙희 (서울YWCA 이사)

박동은 (UNICEF 대외담당관)

박숙자 (이화여대 사회학과 강사)

변도윤 (서울YWCA 봉천동 청소년회관 관장)

조무석 (숙명여대 영문학과 교수)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수실 교수)

재정위원회

위원장 : 정숙자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

위 원 : 김경애 (한국여성항공협회 이사)

김석영

두선약 (한국여성항공협회 이사)

백혜자 (서초구 평동자문위원)

추양수 (한국여성항공협회 이사)

한지영 (한지영의상실 대표)

홍순의 (소름티미스트 전 회장)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위 원 : 김효자 (경기대 일본과 교수)

박금옥 (중앙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 김인숙 (한국우먼스클럽 회장)

김창실 (한국화랑협회 회장, 선화랑대표)

백남희 (국제존타서울클럽 부회장)

유지희 ((주)밤비노 대표)

이경숙 (한국우먼스클럽)

정복영 (한국피아노주식회사 이사)

소비자보호연구위원회

위원장 : 이연숙 (국제존타서울클럽 부회장)

위 원 : 김명자 (숙명여대 화학과 교수)

김영중 (서울대 약학과 교수)

김익기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안기희 (국제환경문제연구소 소장)

이기춘 (서울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근로여성위원회

위원장 : 이동원 (이대 사회학과 교수)

위 원 : 김근화 (여성자원금고 대표)

김령자 (한국노총 여성국장)

김영희 (한국노총 정책실 선임위원)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박영기 (서강대 산업연구소 소장)

배규한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윤자야 (공인노무사)

우리들의 광장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대한영양사회 ●대한여학사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원고도착순)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공동체의식을 위한 결의대회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에서는 지난 2월11일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2백여명이 모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위하여 무절서 과소비 퇴폐 사치 풍조를 근절하고 절프전정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선거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을 배격하는 감시자로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며 공명선거를 위한 실천운동과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공동체의식 갖기운동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한영양사회

영양사 정책수립을 위한 신년좌담회 개최

대한영양사회에서는 영양사 정책수

립에 관한 학계와 방항정립 및 공동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25일 대한영양사회 역대 회장단을 전국 전문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협의회 임원진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조정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을 중심으로 한 작년도의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영양사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학계와의 공동추진 방안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용, 이의 공동추진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영양사 국가고시 응시자격 요건의 강화, 영양사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활동, 영양사취업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고충상담실 운영 실시

대한영양사회는 오는 3월부터 회원들이 영양사직을 수행하면서 혼자로는 해결하기 힘든 고충에 대하여 상담과 조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 영양사업무 수행능력을 높이며 아울러

직장내에서의 영양사 지위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충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본 상담실 운영은 직접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즉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며, 상담실운영결산을 통해 대한영양사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여학사협회

새질서·새생활 관련 글 모집

대한여학사협회는 지난 1월30일 제41차 정기총회에서 새질서·새생활 운동과 관련된 글 모집을 공표하였다.

과소비·퇴폐문화 풍조, 폭력난무, 도덕성 상실 등의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벌이는 이번 글 모집의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주제: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교육지침 ●환경보호 ●과소비추방 및 자원절약 ●윤리와 도덕성 회복 ●절서의식 고취

원고는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양식은 자유롭되 실천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원고마감은 3월 5일까지이다. 또한 3월15일 발표된 당선작 4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협회지 「협회 소식」 제112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우리들의 광장

대한조산협회

부산지부 제46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조산협회 부산지부(지부장: 이화자)는 지난 2월7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179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9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에 이어 회관건립을 위한 기금적립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대지역 봉사사업으로 시내 개업 조산소에서는 도시영세민을 대상으로 무료진찰 및 분만과 미혼모상담을 계속사업으로 권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91년도에는 지부 활성화를 위한 회원관리와 재정확보, 그리고 회원권익옹호 등에 중점을 둔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심의 통과되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고 정충량 선생님 추도예배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제2, 5, 6대(1968~1971, 1978~1985) 회장을 지낸 정충량 선생님이 지난 1월22일(미국시간 1월21일 새벽 4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타계하셨다. 교육자이며 언론인으로 한국 여성계의 원로이시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1월26일 연합회강당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김홍호 목사(이대교목)의 집례로 실시된 추도예배에서

는 숙명여교 이정자 교장과 이화여대 김숙희 교수의 추도사 낭독과 조정희 추도위원회 위원장의 약력보고가 있었다.

1991년도 전국지방지회 지부 연수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 2월7일부터 9일까지 삼일간 잠실 올림픽유스호텔에서 각 지방지회·지부의 지회장, 지부장을 비롯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1991년도 전국지방지회·지부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91년도 중점사업에 대한 각 지회·지부별 발표 및 토의에 이어 율곡이를 통한 화합의 시간을 갖고, '지자체에 따른 유권자의 자세'에 대한 한기찬 변호사의 강연이 있었다.

또한 각 고발센터 실무자들이 의류·식품·가전제품·방문판매, 보험·금융 등의 항목별 고발사례 연구와 발표를 통해 앞으로의 고발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도 벌였다.

구정맞이 어머니 무료예절 교육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 2월 11일 해마다 우리 교유의 설을 맞아 우리 어머니들에게 가르쳐 오고 있는 명절날 한복 바로입기, 절하는 법 등 '구정맞이 어머니 무료예절 교육'을 생활관에서 실시하였다.



편집후기

이번 호에는 올 '91년도에 펼쳐질 본회와 회원단체들의 사업계획을 특징으로 실었습니다. 용무사미의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풍성한 결실로 맺어져 알찬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월간여성 ● 1991년 3월호 통권 283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김경오

편집인: 김공래

인쇄처: 코리아 해럴드

사진식자: 한라7월

발행일자: 1991년 3월 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7가

40-427, 428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조정순

위원: 김효자/박금옥/박영혜/박용옥/

신동식/오종자/최창섭

담당: 심숙보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숲속의 궁전!



예일예식장



* 예일만의 자랑

- 각층에 식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 완벽한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0대 동시 주차시설)
- 예일이 직접 회관을 운영합니다.
- 셔틀버스를 무료운행 합니다. (대공원후문 → 예식장 왕복)
- 다양한 드레스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전문미용사를 두고 있습니다.

● 예약문의

453-2121
453-9871 ~ 5



성동구 구의동 58-16